

중간고사는 4/16 목요일 3-6 PM.

$i\hbar \frac{\partial U}{\partial t} = \mathcal{H}(U)$ 를 유도하는 법은 다시 공부해 보자.

$U(dt+t, 0) = U(dt+t, t) U(t, 0)$ 을 이용한다.

$$U(dt+t, 0) = \text{Exp}\left(-i \frac{1}{\hbar} \mathcal{H}(t) dt\right) U(t, 0)$$

$$= \left(1 - i \frac{1}{\hbar} \mathcal{H}(t) dt\right) U(t, 0)$$

$$U(dt+t, 0) - U(t, 0) = -i \frac{1}{\hbar} \mathcal{H} dt U(t, 0)$$

$$i\hbar \frac{\partial}{\partial t} U(t, 0) = \mathcal{H} U(t, 0).$$

증명 완료. 아마도.

아무튼, 이 time translation operator 에 대한 미분방정식은 슈뢰딩거의 wave equation 으로 이어진다. $U|\alpha, 0\rangle = |\alpha, t\rangle$ 를 이용.

$$i\hbar \frac{\partial}{\partial t} |\alpha, t\rangle = \mathcal{H} |\alpha, t\rangle, \quad i\hbar \frac{\partial}{\partial t} \langle \alpha' | \alpha, t \rangle = \mathcal{H} \langle \alpha' | \alpha, t \rangle$$

~~$\langle \alpha' | \mathcal{H} | \alpha, t \rangle$ 가 정당화됨~~

$$i\hbar \frac{\partial}{\partial t} \langle \alpha' | \alpha, t \rangle = \langle \alpha' | \mathcal{H} | \alpha, t \rangle. \quad \mathcal{H} \text{ 를 어떻게 씀으로 써내려.$$

$\mathcal{H} = \frac{1}{2m} p^2 + V(x)$ 의 형태라면,

$$V(x) = \langle \alpha' | V(x) | \alpha'' \rangle = V(x') \delta(x' - x'')$$

그러므로 양의, $\langle \alpha' | p | \alpha \rangle = -i\hbar \nabla \langle \alpha' | \alpha \rangle$ 라고 알고 있다.

$$\text{이전에 증명한 점 있으니 다시 공부하러, } \langle \alpha' | \frac{1}{2m} p^2 | \alpha \rangle = -\frac{\hbar^2}{2m} \langle \alpha' | \alpha \rangle$$

$$\text{결론은, } \langle \alpha' | \mathcal{H} | \alpha, t \rangle = \langle \alpha' | \frac{1}{2m} p^2 + V | \alpha, t \rangle = \left(-\frac{\hbar^2}{2m} \nabla^2 + V\right) \langle \alpha' | \alpha, t \rangle$$

이렇게 슈뢰딩거의 wave equation 이 나온다.

$$i\hbar \frac{\partial}{\partial t} \varphi_\alpha = -\frac{\hbar^2}{2m} \nabla^2 \varphi_\alpha + V \varphi_\alpha.$$

\mathcal{H} 에 대한 eigenstate, $\langle \alpha' | \alpha \rangle = U(x')$, $\langle \mathcal{H} | \alpha \rangle = E_\alpha | \alpha \rangle$,

$$\text{슈방에 넣으면 간단한 미방이 나온다. } \left(-\frac{\hbar^2}{2m} \nabla^2 + V\right) U(x') = E_\alpha U(x') = i\hbar \frac{\partial}{\partial t} U$$

Wave function의 해석.

U 가 unitary 하기 때문에, $U^\dagger(x) U(x) = 1$ 이다.

따라서 normalized 된 상태는 시간진화를 해도 계속 normalized 되어 있다.

probability density, $\rho = |\psi|^2$ 이라 둘 때,

$\int \rho dx = \int |\psi|^2 dx$ 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. 이게 probability conservation.

$$\frac{d}{dt} \int \rho dx = \frac{d}{dt} \int dx^3 \psi^* \psi = \int dx^3 \left(\frac{\partial}{\partial t} \psi^* \right) \psi + \psi^* \left(\frac{\partial}{\partial t} \psi \right) = 0.$$

슈뢰딩거 방정식을 이용해 시간 미분된 wave function term 을 정리.

$$\frac{d}{dt} \psi = \frac{1}{i\hbar} \left(-\frac{\hbar^2}{2m} \nabla^2 \psi + V \psi \right)$$

$$\frac{\partial}{\partial t} \int \rho dx = \frac{1}{i\hbar} \int dx^3 \left(\frac{\hbar^2}{2m} \nabla^2 \psi^* - V \psi^* \right) \psi + \psi^* \left(-\frac{\hbar^2}{2m} \nabla^2 \psi + V \psi \right)$$

ψ 와 ψ^* , V 는 연산자가 아니라 함수라서 교환이 성립한다.

$V \psi^* \psi$ 와 $\psi^* V \psi$ 가 cancel out.

$$\frac{\partial}{\partial t} \int \rho dx = \frac{\hbar}{2mi} \int dx^3 \left(\nabla^2 \psi^* \right) \psi - \psi^* \left(\nabla^2 \psi \right)$$

$$\begin{aligned} \text{여기서, } \nabla \cdot [\psi \nabla \psi^* - \psi^* \nabla \psi] &= \psi \nabla^2 \psi^* - \psi^* \nabla^2 \psi + (\nabla \psi) \cdot (\nabla \psi^*) - (\nabla \psi^*) \cdot (\nabla \psi) \\ &= \psi \nabla^2 \psi^* - \psi^* \nabla^2 \psi. \end{aligned}$$

이것을 이용.

$$\frac{\partial}{\partial t} \int \rho dx = \frac{i\hbar}{2m} \int dx^3 \nabla \cdot [\psi^* \nabla \psi - \psi \nabla \psi^*]$$

이렇게 probability ~~conservation~~ flux 를 정의한다. $\mathcal{J} = -\left(\frac{i\hbar}{2m}\right) [\psi^* \nabla \psi - \psi \nabla \psi^*]$

$$\therefore \int \frac{\partial \rho}{\partial t} + \nabla \cdot \mathcal{J} dx^3 = 0. \quad \text{이게 바로 continuity equation 이다.}$$

양자역학 공식에서 무얼 바꿔야 고전역학이 될까?

Hamilton Jacobi equation. 을 먼저 알아야 된다.

나는 Tong의 고전역학 강의 노트를 기준으로 공부했다.

① 운동의 시작점 q_i^i , 운동의 끝점 q_f^f , 그리고 총운동 시간 T 가 주어졌을 때, 이 조건을 만족하며 오일러-라그랑주 방정식을 만족하는 경로 $q^{classical}$ 이 있다 하자. 어떤 함수 W 는 q_i^i, q_f^f, T 가 주어졌을 때 $q^{classical}$ 의 액션을 반환한다.

$$W(q_i^i, q_f^f, T) = S(q^{classical}) = \int_0^T L(q^{classical}, \dot{q}^{classical}, t) dt.$$

② δS 를 구하면 오일러-라그랑주 방정식 쪽은 0이 된다.

$$\delta S = \int_0^T \delta q \left[\frac{\partial L}{\partial q} - \frac{d}{dt} \left(\frac{\partial L}{\partial \dot{q}} \right) \right] dt + \left[\frac{\partial L}{\partial \dot{q}} \delta q \right]_0^T = \frac{\partial L}{\partial \dot{q}} \Big|_{final} \delta q_{final} - \frac{\partial L}{\partial \dot{q}} \Big|_{initial} \delta q_{initial}$$

~~따라서 W 를~~ $\therefore \delta S = p^{final} \delta q^{final} - p^{initial} \delta q^{initial}.$

따라서 W 를 q_f^f 에 대해 미분하면 마지막 점에서 운동량 p^{final} 이 나온다.

$$\frac{\partial W}{\partial q^{final}} = \frac{\delta S}{\delta q^{final}} = p^{final}.$$

이제 W 의 T 에 대한 편미분을 구해 보자. $\frac{dW}{dT}$ 자체는 마지막 시점에서 라그랑지안이다

$$\frac{dW}{dT} = L(q_s^{final}, \dot{q}_s^{final}, T).$$

그런데 $\frac{dW}{dT}$ 를 편미분으로 쪼갤 수 있다.

$$\frac{dW}{dT} = \frac{\partial W}{\partial T} + \frac{\partial W}{\partial q_s^{final}} \dot{q}_s^{final} = \frac{\partial W}{\partial T} + p_s^{final} \dot{q}_s^{final} = L^{final}.$$

어라? 르장드르 변환이 가능하다.

$$\frac{\partial W}{\partial T} = L^{final} - p_s^{final} \dot{q}_s^{final} = -\mathcal{H}(q_s^{final}, p_s^{final}, T)$$

아까 p^{final} 도 W 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,

$$\frac{\partial W}{\partial t} = -\mathcal{H}(q_j, \frac{\partial W}{\partial q_j}, t) \quad \text{이게 바로 Hamilton-Jacobi eq.}$$

정리하면,

$$\frac{\partial W}{\partial q_j} = p_j^f, \quad \frac{\partial W}{\partial t} = -\mathcal{L}$$

우리는 W 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? 운동의 시작점은 고정돼 두고, 끝질 양과 차만 변수로 받은 함수고 보자. 이것은 configuration space에 퍼져있고,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스칼라 장이다. $\nabla W_{(x)} = P_{(x)}$ 이기 때문에, 이 스칼라장의 기울기가 한 순간, 그 지점에서 운동을 결정한다. 한 시점에서, W 값이 같은 점들은 어떤 면을 생각한다면 (마치 ~~전위~~ 전기포텐셜에서 등전위(면처럼))

입자는 그 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움직인다.

즉, $W(q, t)$ 는 "입자가 t 시간에 q 위치에 있기위해 지금까지운동한 액션"이다.

해밀토니언이 일정하다면, $\frac{\partial \mathcal{L}}{\partial t} = 0$ 이라면,

$$\frac{\partial^2 W}{\partial t^2} = -\frac{\partial \mathcal{L}}{\partial t} = 0, \quad \frac{\partial W}{\partial t} = \text{constant.}$$

W 은 t 에 대한 일차항을 가진다. 어떤 상수 E 를 이용해서, $W(q, t)$ 를 위치와 시간에 대한 함수로 분리할 수 있다.

$W = W^0(q) - Et$, 여기서 E 는 초기상태에 의해 정해지는 값이면, 곧 있으면 이게 total energy 라는 점을 알게 된다.

$$\mathcal{L} = \frac{p^2}{2m} + V = \frac{1}{2m} \sum_j \left(\frac{\partial W}{\partial q_j} \right)^2 + V = \frac{1}{2m} |\nabla W|^2 + V$$

즉 $W(q, t)$ 와 해밀턴-자코비 방정식에 대입

$$\frac{\partial}{\partial t} (W^0 - Et) = -\frac{1}{2m} |\nabla (W^0 - Et)|^2 + V$$

$$-E + \frac{1}{2m} |\nabla W^0|^2 + V = 0, \quad |\nabla W^0| = \sqrt{2m(E-V)} = |p|$$

$$p = \nabla W(q, t) = \nabla W^0$$

이 점을 감안하면, $E-V$ 가 바로 $\frac{|p|^2}{2m}$, 운동에너지.

E 는 곧 총 에너지다. $W(q, t)$ 를 결정할 때 E 를 초기상태에 따라 총 에너지로 지정해 주고, ∇W^0 를 풀어주면, 그것은 총 에너지 E 를 보존하는 입자의 운동을 기술하는 W 가 되는 것이다.

특정한 W' 값을 가지는 면은 시간에 따라 움직일 수 있다.

이것은 ~~F의 속력~~ 이동속도의 크기가 E 이고, 마치 파동의 파면의 phase velocity 에 비유할 수 있다.

최소 작용의 원리에 따라, 입자는 액션을 줄이기 위해 W 의 기울기를 따라 운동한다.

이제 양자역학과 연관지어 보자. 파동함수를 복소수 극좌표 계로 나타낼 것이다.

어떤 함수 $\psi(x, t)$ 에 대해, $\psi = e^{i\phi/\hbar}$ 라고 나타내자.

이걸 슈뢰딩거 방정식에 넣어 보자. $\nabla^2 \psi = \nabla^2 e^{i\phi/\hbar}$ 를 계산하는 게 관건.

(하위에서 계산해서 가닥을 잡자.

$$\frac{\partial^2 \psi}{\partial x^2} = \frac{\partial}{\partial x} \left[\frac{i}{\hbar} \left(\frac{\partial \phi}{\partial x} \right) \psi \right] = \frac{i}{\hbar} \left(\frac{\partial^2 \phi}{\partial x^2} \right) \psi - \frac{1}{\hbar^2} \left(\frac{\partial \phi}{\partial x} \right)^2 \psi.$$

$$\nabla^2 \psi = \frac{i}{\hbar} (\nabla^2 \phi) \psi - \frac{1}{\hbar^2} |\nabla \phi|^2 \psi.$$

이걸 이용해 슈방을 풀 건 정리하면 ϕ 에 대한 미방을 얻을 수 있다.

$$\frac{\partial}{\partial t} \phi + \frac{1}{2m} |\nabla \phi|^2 + V = \frac{i\hbar}{2m} \nabla^2 \phi$$

만약 ~~h~~ $\hbar \rightarrow 0$ 이라면, W 대신 ϕ 에 대한

Hamilton Jacobi equation 이 되는 것이다.

양자역학 방정식이 고전적으로 되는 것이다.

$$\psi = \exp\left(-\frac{i}{\hbar} \cdot \text{고전적 작용}\right). \quad \text{양자역학에서는 작용이 phase를 돌린다.}$$

ϕ 를 \hbar 에 대해 expand 해 보자. 0차항이 고전적 W가 되리라 기대한다.

$$\phi \simeq W + \frac{\hbar}{2} W_1 + \left(\frac{\hbar}{2}\right)^2 W_2 + \dots$$

이 식에서 보았을 때, $\hbar |\nabla^2 W| \ll |\nabla W|^2$ 일 때,

즉 W의 변화가 \hbar 보다 클 때, $\psi = \exp(i\phi/\hbar)$ 의 phase가 \hbar (치)에 따라 확률 돌아갈 때 고전적이게 된다.

드 브로이 물질파가 좋은 예시이다.

$$p = \hbar k = \frac{h}{\lambda} \quad \left(\text{수업 때 필기된 값을 쓴 거 같음} \right)$$

ϕ 를 \hbar 에 대해 expand 한 걸 ϕ 에 대한 미방에 넣어 보자. W_1 을 구할 수 있다.

$$\frac{\hbar}{2} \frac{\partial}{\partial t} W_1 + \frac{1}{2m} \cdot \frac{\hbar}{2} \cdot 2 \times (\nabla W \nabla W_1) = i\hbar \frac{1}{2m} \nabla^2 W$$

대체 어떻게 유도한 건지 확인 할 필요 있다.

⑤ W_1 까지 구하면 이것은 probability density ρ 를 결정.

$$\psi = e^{i\Theta/\hbar} = e^{i(W + \frac{\hbar}{2} W_1)/\hbar} = e^{W_1} e^{iW/\hbar}$$

$$|\psi|^2 = e^{2W_1} = \rho(x, t)$$

"구전적 맥락에서 벗어난 상이 probability distribution을 만든다."